

2023학년도

제7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4년 2월 29일(목) 16:30

2. 장 소 : 화도관 대회의실

3. 대학평의위원회 의원(12명)

■참석의원 : 정동훈, 권인철, 정용식, 유경선, 김대관, 김준세, 김은채,
반중혁(8명)

■불참의원 : 이강훈, 강성률, 천성오, 이재현(4명)

4. 안 건

가. 대학 학사구조 개편(안) - 자율전공 신설(안)

나.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다. 다전공 및 연계·융합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5. 회의 내용 및 회의결과

- 정석재 처장(이하 '기획처장')이 대학평의위원회 의원 변경 내용을 보고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하다.
 - 위촉장 수여식 진행
- 기획처장이 기획관리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다.
- 정동훈 의장(이하 '의장')이 성원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하다.
 - 재적의원 12명 중 8명 참석
- 의장이 대학평의위원회 본 회의 상정 안건을 설명하고, 회의를 주관하다.

가. 대학 학사구조 개편(안) - 자율전공 신설(안)

- 기획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권인철 부의장(이하 '부의장')이 '27학년도 정원조정 진행 방향을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학칙에는 '26학년도까지만 반영되며 자율전공 비율은 25% 유지할 예정이나 '25학년도 모집하여 운영하면서 추후 검토할 예정임을 답하다.
- 부의장이 '27학년도에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포물러 지표와 인센티브 예산으로 배정이 구분되며, 교육혁신에

대한 정성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 예산을 배정하므로 해당 부분이 영향을 준다고 답하다.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자율전공 정원 비율을 절대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나 일부 영향이 있다고 설명하다.

- 정용식 의원이 고려대는 단과대학 모든 교수가 대학원 소속이어서 학과 쓸림 현상으로 인한 갈등이 없다고 설명하다. 이러한 유형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유형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교원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소속에 관한 것이며, 입학생을 모집하여 자율전공으로 들어온 학생의 전공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답하다.
- 정용식 의원이 고려대가 유형2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교육부가 제시한 유형1이 유형2보다 더 혁신적인 것으로 유형1을 10%, 유형1과 유형2를 합하여 25%가 가산점 만점임을 답하다. 우리대학은 현재 자율전공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2025학년도부터 유형1로만 20% 자율전공 입학생을 모집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 컨설팅 시에 우리대학이 매우 혁신적인 것으로 좋은 평가가 될 것이라고 답변받았음을 부연하다. 대부분 대학은 자율전공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25학년도에 유형1과 유형2를 합하여 25%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홍익대는 현재 유형1로만 25% 이상 운영하고 있어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부연하다.
- 김준세 의원이 자율전공 취지는 이해하나, 소수학과는 정원이 감소되는 것에 민감할 수 있다고 개진하다. 특정학과로 쓸리는 현상이 보완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자율전공을 지원할 제도 및 정책 마련을 위하여 관련 TF가 가동 중임을 답하다. 또한 자율전공 정원조정 시에도 소수학과를 고려하였음을 부연하다. 전과제도는 성적으로 진입을 제한할 수 있으나, 자율전공은 성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므로 선수과목 등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답하다. 교육부에서 이러한 쓸림현상에 대한 제도 및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컨설팅 시에도 직접 요청하였다고 설명하다.
- 유경선 의원이 정원조정 시에 소수학과에게 차등을 둔 것이 정원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질의하다. 또한 자율전공을 먼저 운영한 타 대학 사례를 통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25학년도에 20%, '26학년도에 25% 확대하면서 소수학과는 '26학년도에도 20%로 유지함을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먼저 자율전공을 도입한 대학들은 대부분 약 5%를 자율전공으로 운영하고 있어 쓸림현상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하다.
- 유경선 의원이 쓸림현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진하다.
- 의장이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향후 학생이 선택하지 않는 학과, 수업은 유지하기 어렵다고 개진하다.

- 기획처장이 학사구조 개편(안)이 이러한 혁신성에 대하여 크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진하다.
- 의장이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다.
- 의장이 찬반 의사를 묻고 각 의원들이 거수로 찬반 의사를 표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 대학 학사구조 개편(안) : 출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 찬성 표결 : 정동훈, 권인철, 정용식, 유경선, 김대관, 김준세, 김은채, 반중혁
- 의장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나.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전홍배 처장(이하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정용식 의원이 지능형로봇학과 정원이 없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지능형로봇학과는 사업단의 사업일환으로 개설된 학과로 모집정원이 없는 학과임을 설명하다.
- 정용식 의원이 자율전공 학생 중에 지능형로봇학과로 학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전과만 가능함을 답하다.
- 부의장이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과 소속이 바뀌는 것으로 졸업하는지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논의 중이나, 학과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현재 논의중임을 답하다.
- 기획처장이 '학과진입'과 자율전공에 남아있으면서 '주전공선택'으로 표현함을 설명하고, 이화여대와 같이 100% 학과진입하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홍익대처럼 주전공선택도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하다. 주전공선택이란 '학과진입'하지 않고 학생이 선택하는 학위의 졸업요건을 만족하여 졸업하는 것으로 졸업시 소속은 자율전공학부라고 답하다. 당초에는 둘 다 가능한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다른 대학 사례를 조사하면서 현재 검토중임을 답하다.
- 부의장이 졸업요건과 관련하여 연계되는 학칙 이외의 규정 개정은 향후 진행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국제학부 다전공이수 의무화에 대한 졸업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사항은 학칙 개정 이외에 시행세칙 등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지 부연하여 설명하다.
- 권지숙 교육지원팀장(이하 '교육지원팀장')이 이를 사전에 확인하였고, 학칙 시행세칙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학칙만 개정한다고 답하다.
- 의장이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다.
- 의장이 찬반 의사를 묻고 각 의원들이 거수로 찬반 의사를 표하다.
- 의장이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의결내용**

- 출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가결
- 찬성 표결 : 정동훈, 권인철, 정용식, 유경선, 김대관, 김준세, 김은채, 반중혁
- 1) 「첨단학과 미승인 시, 학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 2) 「첨단학과 승인 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

다. **다전공 및 연계·융합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김대관 의원이 연계전공이 취업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질의하다. 또한 대학에서 이에 대한 문의로 논의된 바가 있는지 질의하다.
- 교육지원팀장이 연계전공은 전공의 벽을 허물어 연계하는 전공을 의미하며, 복수전공은 학위가 나오고 부전공은 학위가 나오지 않는 데 비하여 복수전공보다 이수학점은 낮지만 연계전공을 이수하면 학위가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다. 2023학년도에 이러한 연계전공의 취지를 살리면서 학점 완화 등의 정비가 진행되었다고 부연하다. 부전공보다 전공에 대한 심화교육을 통해 학사학위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연계전공을 설명할 수 있다고 답하다.
- 의장이 졸업장에 연계전공으로 학위가 명시되는지 질의하다.
- 교육지원팀장이 졸업장에 학위로 명시된다고 답하다. 취업지원팀에서 간혹 연계전공 이수에 대한 문의가 접수된 적이 있어 이수과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적이 있다고 답하다.
- 의장이 김대관 의원에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연계전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김대관 의원이 교육지원팀장의 설명이 학생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홍보되지는 않고 있다고 답하다. 이러한 연계전공의 취지와 장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특히 학위취득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학생 홍보를 강화하여 연계전공 확산이 필요하다고 개진하다.
- 부의장이 정책법학대학 다전공이수 의무에 대한 삭제조항 개정사항이 학칙 이외에 「학칙 시행세칙」 제33조(졸업요건) 17호에 명시되어있어 차기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진하다.
- 교무처장이 개정하겠다고 답하다.
- 의장이 더 이상 자문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자문내용을 정리하다.
 - 연계전공 취지와 졸업증명서 학위가 명시되는 사항 등을 학생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연계전공이 확산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3조(졸업요건)제17호 정책법학대학 국제학

부 다전공 이수 의무에 대한 조항을 학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차기에 개정을 진행하도록 검토가 필요함

- 의원 전원이 자문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6. 폐회

위원장이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친 후 폐회를 선언하다.

붙 임 : 회의자료 1부. 끝.

2024년 2월 29일

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

의 장 정 동 훈 (서명)

부 의 장 권 인 철 (서명)

평 의 원 정 용 식 (서명)

평 의 원 이 강 훈 (서명)

평 의 원 유 경 선 (서명)

평 의 원 강 성 릉 (서명)

평 의 원 천 성 오 (서명)

평 의 원 김 대 관 (서명)

평 의 원 김 준 세 (서명)

평 의 원 김 은 채 (서명)

평 의 원 이 재 현 (서명)

평 의 원 반 중 혁 (서명)